

정답	01 ④	02 ③	03 ④	04 ⑤	05 ④	06 ③	07 ③	08 ①	09 ①	10 ⑤
	11 ③	12 ⑤	13 ③	14 ④	15 ①	16 ⑤	17 ②	18 ①	19 ⑤	20 ⑤
	21 ②	22 ④	23 ④	24 ③	25 ③	26 ⑤	27 ①	28 ③	29 ②	30 ①
	31 ②	32 ②	33 ①	34 ②	35 ②	36 ④	37 ⑤	38 ④	39 ④	40 ⑤
	41 ②	42 ①	43 ④	44 ②	45 ③	46 ①	47 ③	48 ②	49 ④	50 ④

출제 경향

2010학년도 수능이나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서도 약간 어려웠다. 중, 하위권 학생들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학생들도 체감할 만큼 난이도가 상승했다 할 수 있을 정도다. 특히 지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상황 파악이 쉽지 않은 것들이 다수 있었고, 길어도 길어져서 시간 부족을 느낀 수험생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오답 선택지의 매력도도 역시 높아져서 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도 정답을 찾기가 수월하지 않은 문제도 다수 있었다.

빈칸 유형의 경우 지문과 선택지의 길이가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외국어 영역의 성적을 좌우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독해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는데, 역으로 말하면 빈칸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 얼마나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가 역시 수능의 관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어법 문제는 평이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출제되었고, 어휘 문제는 6월에 비해 약간 더 어려워졌으며, 또한 지문 전반의 어휘 수준이 상승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이다.

출제 문항 분석

이번 9월 평가원의 유형은 지난 6월 모의 평가에 비해 빈칸 문항이 하나 줄고 연결사 유형이 다시 출제되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전반적으로 독해 지문의 소재가 다양해지고, 전개 방식이나 표현 방식이 단선적이지 않아 글 전체의 난이도가 높아졌고, 추상적이거나 우회적인 표현들이 늘어나고 길이가 길어지는 경향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어휘 수준이 높아져 지문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어법에선 20번 문제에서 이제껏 수능과 평가원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던 대동사 문제가 출제되어 어법을 깊이 준비하지 않았던 학생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며, 21번 문제는 목적절의 if와 that을 구분하는 문제가 다소 난이도 있게 출제되었다.

이번 9월 평가원의 빈칸 유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학생들에게 체감 난이도가 높게 느껴졌을 듯하다. 지문의 내용이 한 번에 쉽게 파악되고 정답이 보이는 쉬운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밖에 출제되지 않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주제들을 담고 있는 것들로 나머지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어 지문을 이

해하는 데 일단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고, 또 정답과 오답 선택지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보여 학생들이 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워했을 것이다. 잘못된 어휘의 쓰임을 고르는 문제도 지문의 정확한 논리를 파악해야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난이도 있는 문제였다.

청해는 듣기 유형 13개, 말하기 유형 4개로 구성되었으며, 듣기에선 처음으로 주제를 묻는 유형이 출제되어 이채로웠다. 독해는 읽기 유형 26개, 쓰기 유형 7개로 출제되었다. 배점은 2010학년도 수능과 같이 1점 3문항 3점, 3점 3문항 9점, 2점 44문항 88점으로 출제되었다.

영역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항 수	13	4	25	8
배점	1점 3문항, 2점 44문항, 3점 3문항			

해설

01 듣기 : 그림 정보 파악하기

먼저 house-shaped one은 거부했고, train-shaped one에서 handle(손잡이)이 없는 것 (automatic)을 추천하지만 여자는 manual한 것을 원하고 마지막에 cat-shaped one을 선택하므로 고양이 모양에 손잡이가 있는 연필깎이인 ④가 정답이다.

02 듣기 : 심정 추론하기

여자의 새로운 직장에 대한 언급에 남자는 “I wish I could work in a place like that.”라고 말하며 ③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03 듣기 : 주제 찾기

EBS 300제 제목 문제를 듣기로 변형한 문제로, “Your voice has to be “warmed up” before it can really operate at its best.” 특정 표현으로는 vocal-warm up 이 등장하므로, ④ 운동 전 발성 연습의 중요성이 정답이다.

04 듣기 : 남자가 할 일

남자가 John이 장난으로 자신의 책을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집 책상에서 발견해서 미안하다고 문자(text message)를 보내려고 하지만 여자가 직접 사과하라고(talk to him in person) 충고하고 남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내용이므로, ⑤가 정답이다.

05 듣기 : 수치 파악하기

열쇠 고리(key rings)를 사는데 처음 가격은 \$7이었으나, 여자가 4개를 사겠다고 하자 남자가 \$6.5을 제안하지만 여자가 거부하자 결국 \$6에 합의하는 내용으로, 여자가 \$30을 주었으므로, \$24을 제외한 ④ \$6의 거스름돈을 받아야 한다.

06 듣기 : 목적 파악하기

지하 주차장 청소를 위해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내용(if you haven't moved your car yet, please make sure to do it before the cleaning starts)이므로, ③이 정답이다.

07 듣기 : 부탁, 요청하기

남자가 medical check-up results를 받아 보고자 하나, 출장을 가야 해서 e-mail로 보내달라고 하자 여자가 직장 상사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남자의 부탁으로 ③ to email his check-up results 이 정답이다.

08 듣기 : 장소 파악하기

여자가 internet access를 요청하자 남자가 바로 room number를 묻고 있는 것만으로도 장소는 ① 호텔이 정답이다. 추가 정보로는 guest를 위한 business center에서 internet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09 듣기 : 두사람의 관계 파악하기

사무실 비웠을 때 메시지가 없었는지 물어보고 있고, 비행기 출발 시각과 티켓 미팅 시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므로, 둘의 관계는 ① 직장 상사-비서이다

10 듣기 : 여자가 할 일

남자는 마쳐야 할 리포트가 있어서 여자 혼자 어머니의 생일 선물을 사려는 상황에서, 남자가 Squares Department를 추천하고 Credit Card를 쓰면 5% discount가 된다고 하자 여자가 마지막에 “I am going to look for it right now”라고 하므로, ⑤ 백화점 신용 카드 찾기가 적절하다.

11 듣기 : 도표 내용 확인

우선 Hot Springs가 없어야 하고 Barbecue Facilities가 있어야 하며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선택하고 있으므로, ③이 적절하다.

12 듣기 : 내용 일치

① fine-art department ② beginner, inter-mediate, advanced ③ instructors who have more than 5 years experience teaching pottery ④ Upon finishing the course, the students can take part in a pottery exhibition ⑤ There is no fee at all for both instruction and materials for our enrolled students로, ⑤ 재학생의 경우에는 수강료와 재료비 모두 무료이다.

13 듣기 :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화 찾기

“Wow! The mountains look so beautiful from here.” “You can say that again. It is out of this world”라고 하며 케이블카에서 경치를 보며 감탄하는 내용이므로, ③이 적절하다.

14 말하기 :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고르기

여자가 너무 춥게 입을 상황에서 마지막에 “What should I do?”라고 여자가 묻고 있으므로, ④ “Let’s see if there is a store that sells jackets.”가 적절하다.

15 말하기 :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고르기

여자가 남자에게 들을 만한 수업을 추천해 달라고 하고 남자가 수업에 대해 설명하는 상황에서, 여자가 “I am not sure if I want to take her class.”라고 성적(grade)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응답은 ① “Come on! Learning is more important than grades.”이다.

16 말하기 :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고르기

클래식 앨범을 사고자 하는데 그 앨범의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I really wanted to buy it for my father’s birthday.”라고 한다. 이에 대한 적절한 응답은 ⑤ “Do you want me to check if our main store has one?”이다.

17 말하기 : 상황에 적절한 말 고르기

Yumi는 댄스팀 일원으로서 다음 달에 큰 댄스 경연 대회에 참여해야 하는데 당일에 중간고사가 있다. 시험을 놓치고 싶지 않은 Yumi가 교수에게 alternative(대안)를 문의하는 상황에서 할 말로 적절한 것은 ② “Is it possible for me to take the exam on another day?”이다.

18 읽기 : 글의 목적

한 학생으로부터 장학금 추천서를 부탁받은 물리 선생님이 그 학생과 같이 수업한 것이 첫 학기라서 학생의 능력을 잘 아는 다른 선생님에게 추천서를 받는 것이 낫겠다고 하면서, ① 부탁을 거절하는 내용이다.

19 읽기 : 지칭 추론

①~④는 꽃을 배달 중인 소녀를 지칭하지만, ⑤는 요급징수소 직원을 지칭한다.

20 쓰기 : 어법

⑤는 “so+V+S(~도 그렇다)”의 구문으로서, V자리에는 ‘is still with us’를 받는 대동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does가 아닌 is가 적절하다.

21 쓰기 : 어법

(A) another / other

passenger가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기 때문에, another가 적절하다. other passenger는 문법적으로 적절치 않다.

(B) if / that

‘~인지 아닌지’(불확실한 사실)를 물어보고 있으므로, inquire(=ask)다음에 접속사 if(=whether)가 적절하다. 접속사 that은 ‘~라는 사실(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사용된다.

(C) remarking / remarked

‘The purser accepted~ and remarked ~’로서, 앞의 동사와 평행구조를 이루는 remarked가 적절하다. 참고로, ‘The purser accepted~, remarking ~’의 형태로, 접속사 and를 없애고 분사구문으로 쓸 수도 있다.

22 읽기 :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지열을 이용한 ‘heat pump’가 건물의 냉난방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하는 글이므로, ④의 ‘지열이 직접적인 열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원’이라는 내용은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

23 읽기 : 필자의 주장

④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보다는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 보아 더 나아진 현재의 자신을 보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 문장의 ‘remind yourself of your own strength and successes’에 주장하는 바가 드러나 있다.

24 읽기 : 심경 추론

‘두렵지 않다는 말을 중얼거리며, 두근거리는 마음 가라앉히려고 했으나 소용없었고, 불안한 어둠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도움을 요청했으나, 말이 안 나왔다’라는 마지막 세 문장으로 볼 때, ③의 ‘두려운’ 심경이 가장 적절하다. 첫 문장의 gloom은 Michael의 심경이 아니라, 창문 안쪽의 어둠을 지칭함에 유의한다.

25 읽기 : 빈칸 추론

인간에게 있어 실수와 실패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지만, 생태계는 이와 다르다. 많은 종들이 멸종(=실패)해 갔지만 생태계에 거의 해를 끼치지 않았다. 빈칸에는 수백만 년에 걸쳐, 생태계가 실수나 실패들에 대한 놀라운 ‘무엇’을 키워왔는가를 묻고 있는데, 뒷부분에서 수만 개의 종들의 멸종(실패)을 가져온 죽은 운석 충돌에서도 생태계가 남았다고 했다. 생태계에서의 실패가 ‘종의 멸종’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생태계에서가 많은 종들의 실패(멸종)에 대해 ③ ‘무감각함, 둔감함’을 키워 왔다는 것이 적절하다.

26 읽기 : 빈칸 추론

규칙이나 기대를 거부하는 ‘반사회적’ 일탈과는 달리, 스포츠에서의 일탈 행위는 규범이나 기대들을 ⑤ ‘이의 제기 없이 받아들이고, 이에 극단적으로 순응하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적절하다. 마지막 두 문장의 ‘go too far in their acceptance of expectations~’, ‘they are so committed to playing football~’, ‘this overdoing-it-deviance’ 등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27 읽기 : 빈칸 추론

사람들이 시간에 압박감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시간의 압박감을 느끼면서 좌절하고 낙담하며 사고가 위축되고 덜 창의적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삶이 제공하는 풍요로움을 즐기기 위해서는 ① 느긋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적절하다.

28 읽기 : 빈칸 추론

자부심은 우리의 잠재력에 대한 실제(실제로 된 것)의 비율에 의해 결정이 된다. 따라서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성취하고 싶은 양을 줄이기도 한다.(그럼으로써 실제로 해 내는 비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③ 욕망에 의해 나뉘는 성공(예를 들어 욕망이 줄어들면 성공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은 자부심과 같다는 말이 빈칸에 들어가야 한다.

29 읽기 : 빈칸 추론

자연은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며 따라서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자연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주장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내용이 빈칸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연은 어떻게든 인간과 연관된다는 내용이 빈칸에 반영되어야 하고, 빈칸 다음의 내용은 원시 시대부터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자연은 없다는 내용이므로, 인간이 존재하지 않은 곳이 자연이라는 주장을 따르며 지구상에 자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②가 적절하다.

30 읽기 : 빈칸 추론

이성적 사고는 모든 도덕적 주체의 특징이라는 언급 후에 다시 however 다음부터 이를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며 실제 인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문맥 속에서 빈칸이 제시된다. 따라서 빈칸 다음에서 단서를 찾아야 한다. 빈칸 다음 문장에서 먼저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행동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one-size-fits-all) 하나의 대답은 있을 수 없고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different)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사람들이 도덕적 상황마다 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와야 한다. 지문의 초반에 제시된 이성적 사고는, 따라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을 말한다고 해야 하며, 이 글의 주제는 도덕적 판단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다양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④ prejudice라는 표현은 도덕적 판단을 공정하게 하는가, 아니면 주관적 편견에 따라 하는가라는 주제와 연관되는데, 이 지문은 도덕적 판단의 공정성이 아니라 도덕적 판단의 보편적 기준의 존재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31 쓰기 : 문맥에 맞는 낱말

- (A) 어린 학생들이 음식을 선택할 때 친구들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vulnerable이 적절하다.
- (B) 레슬링 팀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학생과 덩치를 키운다(bulk-up)라는 문맥을 참고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dense가 적절하다.
- (C) 선택지 다음 but 이후에 나오는 devour와 반대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앞에는 적절하게 (moderately) 먹는다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32 쓰기 : 밑줄 친 어휘

② 선택지 앞 문장의 내용에서 어떤 스타일의 유머가 어디에서나 (everywhere) 웃음을 유발한다는 내용이고 선택지는 이와 반대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대부분의 유머는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travel well이 아니라 travel badly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사람들이 농담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상황
- ③ 언어 유희를 수반하는 농담의 경우에 이런 상황이 두드러진다.
 - ④ 언어 유희를 수반하는 농담은 다른 언어로 번역이 불가능하다.
 - ⑤ 외국인에게 농담을 하려는 시도가 아무 반응 없는 시선에 직면하게 된다.

33 쓰기 : 연결사

(A) 선택지 앞의 내용은 종이 쇼핑백이 환경친화적이라는 내용이고 선택지 다음은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어렵고 분해되지 않아 환경에 좋지 않다는 내용이므로 대조 관계의 연결사 in contrast가 적절하다.

(B) 선택지 앞의 내용은 종이 쇼핑백이 매립지에서는 분해되지 않아 환경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이고, 다음 내용 역시 종이 생산이 공기 오염을 일으킨다는 내용이므로 종이 쇼핑백의 환경상의 문제점을 나열하는 연결사, Furthermore가 적절하다.

34 읽기 : 글의 주제

두 번째 문장에서 앞으로 타 문화 간의 의사소통을 요구하는 관계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시되고, 이후로는 이에 대한 근거가 나열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한 번 더 사람들이 미래에 처하게 될 타 문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다른 문화의 대화의 관습과 문화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②가 적절하다. 선택지 ④는 limitation이 주제와 맞지 않고 ⑤는 'business world' 때문에 오답이다.

35 읽기 : 글의 주제

첫 문장에서 환자들이 스스로 마음을 털어 놓게 하는 방법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심포지엄이라는 소재가 제시되고, 한 심리학자가 먼저 환자의 마음을 털어 놓게 만들기 전에 환자에게 자신의 사적인 얘기를 먼저 털어 놓는 것이 비결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글의 주제가 된다. 지문의 말미에서 'openness evoked openness'라는 언급을 통해 주제문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②가 적절하다.

36 읽기 : 도표, 그래프의 내용

④ Wikis가 Podcasting에 비해 친밀도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Podcasting이 친밀도에서 20% 가량이 감소했고 Wikis가 10% 가량이 감소했으므로 Podcasting의 친밀도 감소폭이 더 컸다고 해야 한다.

37 읽기 : 내용 일치 여부

마지막 문장에 오른쪽 발에 가해진 자극을 인지하는 왼쪽 뇌가 웃음과 같은 긍정적 감정에 연관되었다는 설명이 제시된다는 것이 나와 있으므로, ⑤가 일치한다.

38 읽기 : 내용 불일치 여부

밑에서 5번째 줄의 'there are fewer species of animals in America'를 통해 America에서 더 적은 종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④는 일치하지 않는다.

39 읽기 : 글의 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중간 요소보다는 결과가 더 기억된다. 4번째 줄의 "전반적인 결과가 좋다면, 그 과정에서 받는 불쾌함은 최소화된다."는 문장이 요지문이므로, ④가 적절하다.

40 읽기 : 글의 요지

저명 인사들의 잘못이 들춰진 뒤에야 사과를 하는 태도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수동형으로 잘못을 말하는 것은 책임감을 버리는 행위이며 사과도 아니고 의미도 없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글의 요지로는 ⑤가 적절하다.

41 읽기 : 글의 제목

고대 아테네에서 올리브가 많이 재배되면서, 올리브 수출로 도자기가 발전되고, 도자기 그림이 발명됐다. 이는 다양함과 사실주의를 가능하게 했고, 무역의 증가로 농부들도 부유하게 됐으며 초기 극장의 바탕을 형성하게 됐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은 ② ‘아테네에서 올리브 재배가 가져 온 것’이 적절하다.

42 읽기 : 글의 제목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북쪽으로, 중동으로 건너가 그 이후 퍼져 나갔다는 이론을 부정하고 있는 글이다. DNA를 조사한 결과 남쪽으로 가는 길이 더 쉬웠을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인도, 동남아시아와 호주로 건너 갔다. 따라서 제목은 ① ‘아프리카에서 어느 길로 벗어났는가?’가 적절하다.

43 쓰기 : 글의 순서

인과 설정의 오류(post hoc fallacy)에 대한 내용의 글이다. 주어진 문장에서 사람들이 때때로 상관없는 사건을 인과 관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상관없는 두 사건(A와 B)를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을 인과 설정의 오류라고 다시 설명하고 있는 글이 (B), 그 구체적인 예로 검은 재킷을 입은 사람을 강도로 오해하는 예를 설명한 내용이 (C)와 (A)로 이어진다. 따라서 순서는 ④ (B)-(C)-(A)이다.

44 읽기 : 문장이 들어갈 위치

씨족 사회에서 전통적인 의식을 이어나가는 것에 관한 글이다. 주어진 문장에서 씨족 회관과 씨족의 나이가 많은 여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①에서 모든 씨족이 의식에 사용되는 신성한 물품과 가면을 보관하는 clanhouse(씨족 회관)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②에서 주어진 문장에서 언급된 이 여성(This woman = the senior female member of the clan)이 의식에 사용되는 도구를 보관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은 ②에 들어가야 한다.

45 쓰기 : 글의 요약

문제 해결에 있어 속도의 중요성이 모든 문화권에서 보편적이지 않다는 내용의 글이다. 서구 사회에서는 빠른 해결 과정을 (quickly arriving at a solution, quick-thinking) 선호하고 높은 가치를 둔다. 하지만 속도가 중요하지 않은 문화도 있는데, 아프리카 농경 사회는 문제 해결이 전 사회의 맥락 속에서 해결이 되는지가, 캐나다의 Cree와 Ojibway족에게는 문제를 신중하게 해결하는지가 중요하다.

→ 현대 서구 사회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속도가 매우 가치가 있지만, 어떤 비서구 사회에는 그들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다르게 보여진다.

[46-47]

46 읽기 : 글의 제목

글쓴이의 지인이 뉴욕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던 경험을 토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해 낼 수 있다는 내용을 풀어 낸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세계(his own inner space)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제목은 ① ‘고독을 통해 스스로를 발견해 내기’가 적절하다.

47 읽기 : 빈칸 추론

빈칸이 있는 문장의 His every perception은 혼자 있을 때 받아들이는 인식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와는 달리 새롭게(with a new freshness)다가오고, 놀라울 정도로 독창적(③ original)으로 보인다.

[48-50]

48 쓰기 : 글의 순서

(C)의 앞에 나오는 this abundance는 (A)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두세 개의 여분을 쌓아 놓곤 했다(I have accumulated two or even three extras)’를 가리킨다. (B)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글쓴이의 일화(불치병에 걸린)가 (D)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순서는 ② (C)-(B)-(D)가 적절하다.

49 읽기 : 내용 불일치 여부

④ 글쓴이의 할머니는 깨진 계란을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다.(She would look at the broken egg with satisfaction.)

50 읽기 : 문맥상 의미

글쓴이의 할머니는 냉장고의 계란이 깨졌을 때 실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스폰지 케이크를 만들 자고 말한다. 할머니의 말씀에는 인생에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어려운 일에 좌절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해 나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글쓴이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 어머니가 “스폰지 케이크를 만들자”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자는 ④가 정답이다.